

세계화 흐름 속에 동아시아 유가윤리에 대한 반성적 사유

景海峰(深圳大學國學研究所)

내용요약: “중국철학” 합법성의 증명은 현존하는 형태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 현재 있는 형식을 반성하고 검토하는 기초 위에서 그 불합리성을 극복하여 자아를 새롭게 정립하고 주체의식을 정립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서양(철학)을 모방함으로써 만들게 된 자기표현의 곤경은 중국철학으로 하여금 전지구화시대에 대응할 힘이 결핍되고 암담하게 하여 당연히 있는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유가윤리로 말하면 산업화의 충격으로 그 현실적 생존 조건을 바꾸게 되었고, 의식형태의 강렬한 해체는 또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노선을 철저하게 전환시켰다. 특히 후자는 백여 년 동안 이어지면서 부단히 비판과 공격을 받아 서양학문방식의 주도하에 종종 왜곡되면서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게”(內外夾擊) 된 유가윤리의 모습을 크게 파괴하여 우리의 감정과 갈수록 낮설게 되었고, 우리의 현실생활과도 갈수록 멀어지게 되었다. 전지구화라는 문화적 혼란과 외부세계의 강렬한 자극은 유가윤리에 대해 다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우리가 인식을 전환하는데 기초를 세웠다.

근래에 중국철학계는 “중국철학” 학과 형태에 대한 반성적 사유가 비교적 많은데, 그에 대한 토론이 매우 강렬하고, 문제(에 대한 이해)도 점차 깊어지고 있다. 2000년 무렵 몇몇 학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현행의 중국철학 학과 체계 및 그 연구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고서는 이미 80여 년 동안 유행하였던 “중국철학사” 형태가 서양의 것을 모방한 것이 너무 많고, 지나치게 의존하여 자신의 특성을 모호하게 하였고, 중국철학이 담고 있는 독특한 정신을 상실하여 서양철학의 기생물[附庸]과 “모방상품”[仿制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중국철학” 학과의 특징과 근본 속성에 관련된 사유와 논의는 그 강렬한 “한계를 돌파하고자”(突圍) 하는 바람과 자못 폭발성을 가진 선동 작용은 곧바로 학술계의 주목과 공감을 일으켰고, 또 신속히 퍼져 이른바 “중국철학의 합법성 위기”(中國哲學合法性危機)라는 대토론을 형성하였다.¹⁾ 막 시작하였을 무렵 몇몇 학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것은 새로운 의미가 없는 옛날이야기라 생각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병도 없는데 죽는다고 신음하는[杞人憂天的無病呻吟]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모두 이 문제 배후에 감추어진 깊은 뜻을 의식하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참된 문제”(真問題)이며, 의미가 있고 토론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재작년 인민대학(人民大學)에서 개최하였던 “중국철학사를 다시 쓰다”(重寫中國哲學史)라는

1) 趙景來, 「中國哲學的合法性問題研究述要」, 『中國社會科學』, 2003년 제6기.

토론회 이후 이 문제를 토론하는 것에 대해 정면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그 가치를 이해하고서 긍정적 태도를 취하였다. “중국철학” 학과 형태에 대한 반성적 사유가 이처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모종의 공감을 이루게 된 것은 모두 현재의 학과 상황에 대해 매우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생각하며, 중국철학사의 연구가 거시적으로 큰 돌파를 하기 기대한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중국철학 합법성”의 토론은 학계에서 새로운 시기의 “어지러움을 제거하여 바름으로 돌아간다”(拔亂反正)라는 작업을 이미 완성하여 중국현대학술의 성과에 대한 충분한 긍정과 총결을 한 것이고, 또 전면적으로 발굴한 후에 계승하고 제고한 상황 아래 발생한 것이다. “원기를 회복한”(恢復元氣) 뒤, 원래 있었던 학과 형식으로 말하면, 많은 문제의 연구는 도리어 이미 다시 깊게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흔히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감이 있게 되었고, 학과 체계의 문제점과 연구방법의 빈곤함은 중국사상의 심도 있는 발굴과 현대적 해석을 제약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이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에서 “중국철학” 학과 형태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켰다. 당연히 학술발전의 요구와 이론적 창신(創新)의 바람 이외에, 많은 측면에서 이 문제의 출현은 중국이 지금 처해 있는 국제환경 및 그 특수한 상황과 연계된 것이다. 20여 년의 고속성장을 통해 경제체로서의 중국은 이미 세계 중량급 행렬에 함께 하고, 전 지구적 환경에서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제적 발전, 국력의 증강과 인민의 물질생활에서의 근본적인 개선은 문화의 “소프트웨어”(軟力量) 측면에서도 필연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요구를 제기하게 되지만, 문화체로서 중국의 현실적 표현은 오히려 생각보다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된 그중의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바로 근대 이후 국가 형세가 날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중국문화가 오랫동안 불리한 위치에 처하여 오직 서양문화만을 따르게 되었고, 특히 학과 형태의 현대학술계통은 기본적으로 서양의 방식을 참조하여 세워진 것으로, 그리하여 지금 표현되고 있는 “자아”(自我)의 형상이 오히려 갈수록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철학”으로 말하면, 호적(胡適), 풍우란(馮友蘭) 등에 의해 만들어진 학과 방식은 서양근대철학에 대한 형식상의 모방과 이식[依傍]으로 이미 사람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자신을 구부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屈己以從人) 결과 필연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것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중국철학은 사람들이 아무나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원료가 되어 자아표현의 서사주체성을 상실하여 엄중한 “실어증”[失語] 상태에 처하였다. 그러므로 세계가 우리에게 창문을 활짝 열어 “문화중국”이 독특한 목소리를 내길 기대하는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무엇을 당신에게 드릴까요, 저는……”(拿什麼奉獻給你, 我的……) 하는 곤혹감에 빠져있다. 이처럼 “내용도 없고”(無理) “힘도 없는”(無力)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걱정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중국문화의 “약세”(弱勢)는 현재 여러 측면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특히 철학이 가장 심하다. 중국철학의 창조력과 현실적 영향으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일찍이 있었던 휘황찬란하였던 업적과 현재 국력에 상응하는 정도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윤리도덕을 가지고 말하면, 역사적으로 중국은 예의의 나라[禮義之邦]로 유명하여 동아시아문명의 도덕 기초 및 그 전범[范式]에 가장 중요한 사상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중국문화 역시 윤리사상에서 뛰어나

다. 이것은 우리나라(중국-오키나와) 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점일 뿐만 아니라, 또 비교적 문명이 발전한 다른 나라 문화권 인사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 중의 중국문화가 체현할 수 있는 윤리정신은 도리어 별로 그렇지 않고, 그 도덕가치도 흔히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뿌리가 없는 상태와 이리저리 뒤엎혀 질서가 없어 평형을 잃은 상태에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의 도덕적 상황이 갈수록 약화되어 매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고 논의하는 초점이 되었다. 이것은 거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휘황찬란했던 것은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어려운 것인가? 전통의 장점은 왜 계승할 수 없는가? 이것은 우리가 깊게 사고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중국사상의 현대성 비판과 학과 형태의 전통도덕학설의 서술로 말하면, 유가윤리는 분명히 이 문제를 사고하는 데 있어서 착수지점[切入點]이다. 왜냐하면 중국문화의 도덕정신의 주요 형성자와 계승자는 유가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대사회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과 검증 받았으므로 우리가 전통과 현대 사이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軌迹]을 찾는다면 유가윤리가 가장 좋은 지점[入手處]이기 때문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근 백 년 동안 중국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거대한 변화에 따라 유가윤리의 현실적 상황은 이미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사상학술의 전체적인 배경으로 말하면, 유학은 이미 원래의 주류문화형태에서 일변하여 분열적이고 이리저리 떠도는 문화적 파편이 되었다. 제도화된 과거(科擧) 형식으로 중추가 되어 대다수 학자들의 공통된 업이었던 유학도 점차 변하여 단지 소수의 지식인들이 떠들어대는 적막한 말이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유가윤리가 사상문화에서 합법성 논증의 효과적인 지지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처한 상황도 저항할 수 없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과거에 일찍이 전통유학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일체에서 파편화되는 과정에서 현대산업문명과 정치의식형태의 이중적 해체를 겪었다고 분석하였다.²⁾ 유가윤리로 말하면, 이러한 상황이 좀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현대산업화의 과정은 향촌사회의 기초를 점진적으로 와해시켰다. 전통적인 취락 형태, 종교 환경, 가정 구조 및 사람 사이의 친소관계와 연계방식 등은 모두 이미 조용히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몇 천 년 동안 이어져온 농업문명에 기초하여 건립된 문화 원형과 그 거대한 서사는 근본에서 의문과 전복이 이루어졌다. 전통유가윤리가 의지하여 생존했던 “토대”[土壤]는 갈수록 척박하게 되고 텅 비게 되면서 그 현실적 영향도 그에 따라 크게 감소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 측면에서 우리는 유가윤리의 현대적 변화 문제를 고려할 때 마땅히 (지난) 백 년 동안에 있었던 중국의 독특한 환경, 즉 정치 요소 혹은 의식형태의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만약 역사적으로 일찍이 유학이 유행하였던 동아시아 지역이 모두 일찍이 비교적 서로 비슷한 현대산업화의 충격을 겪어 전통적 유가윤리가 공전의 위기 내지는 해체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한 한국과 일본에 비교하여 말하면, 정치적 비판과 의식형태 측면의 해체가 더 많았고, 그 결과 유가윤리로 하여금 중국의 현대적 운명에서 더 처량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2) 참고 「儒學的現代轉型與未來定位」, 『儒學現代性探索』, 北京圖書館出版社, 200년 8월.

사상문화비판과 의식형태의 해체로 말하면, 만청(晩淸)시기에서 5·4운동시기에 이르는 시기에 국가존망이라는 절박감으로 말미암아 태생적으로 (중국전통) 문화에 대한 강렬한 애증의 감정이 발생하여 유가는 중국이 가난하고 약하게 된 근원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온갖 모양의 비판과 공격이 끊이지 않아 백 년 이래 세계문화사에서 볼 수 없었던 기이한 상황[奇觀]을 낳게 되었다. 만청시기에 시작하여, 특히 서양문화의 영향[西風]이 점차 거세지면서 유가전통, 특히 그 윤리정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격양되면서 문화급진주의[文化激進主義] 사조가 점점 머리를 들게 되었고, 민국(民國) 초기에 한 차례 고조기를 품게 되었다. 5·4운동을 전후로 하여 진독수(陳獨秀), 오우(吳虞), 노신(魯迅), 호적(胡適) 등과 같은 인물들이 중국의 전통을 힘써 비판하였고, 유가윤리는 흔히 그들이 화력을 가장 집중한 표적[交匯點]이 되었다. 동시에 민국 초기의 혼란 정국과 황제제[帝制]와 공교(孔敎) 사이의 “연관”[聯姻] 관계를 겨냥하여 신문화운동의 주요 인물들은 의식형태화 된 공학(孔學)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하였다. 당시로 말하면 이러한 비판은 “한 가지 학문만을 존송한다는 문호의 폐단을 타도하여 중국의 사상을 해방하고, 회의적 태도와 비판적 정신을 제창한다”(打倒一尊的門戶, 解放中國的思想, 提倡懷疑的態度和批判的精神)³⁾는 것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없이 매우 좋은 점이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점은 5·4운동의 진정한 정신이 뒤에 좀 더 많은 반응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반대로 피상적으로 다루어진 것인데, 특히 그 반 전통 (경향)은 무한대로 확대되고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본래 5·4운동의 “유학을 비판하고 공자에 반대한다”(批儒反孔)는 것은 특정한 역사 배경과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은 옥석을 가리지도 않고 반 전통을 “혁명”과 “진보”의 기치로 삼아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갈수록 격렬하게 되어 고조기가 자주 일어났다. 이처럼 유학 내부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진 “반성적 사유”[閉門思過]와 “자신의 학대”[自戕] 및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형식의 끊임없는 책망과 비판으로 유가윤리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누구라도 예의염치(禮義廉恥), 충효인의(忠孝仁義)와 같은 것을 안주거리로 삼았고, 누구라도 “삼강오륜”(三綱五倫)과 같은 것으로 기분풀이 도구, 화풀이 대상으로 삼으며, 현실이 뜻대로 안 될 때 전통을 원망하고 조상을 욕할 수 있게 되면서 유가사상은 거의 가련하고 불쌍사나운 “천덕꾸러기”(受氣包)와 “속죄양”(替罪羊)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내심 깊은 곳에서 전통에 대해 조금이라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누가 유가윤리의 점점 멀어져 가는 그림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애처롭게 여기겠는가? 백 년 동안에 걸친 “씻어내기”[洗心革面]를 지나면서 전통의 윤리관념과 도덕의식은 거의 완전히 내팽개치게 되었고, (이처럼) 보편적으로 “뿌리가 뽑힌”(失根) 상태는 사회 도처에 허무주의, 공리주의의 분위기가 만연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점차 자신의 “정신적 고향”[精神家園]을 잃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유가윤리의 형상은 부단히 “위축되고”[矮化] “마귀와 같은 것이 되어”[妖魔化], 그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와 유행하던 해석은 단지 구호와 분장하는 도구가 되었고, 그것이 짙어진 “오물”[污垢]은 갈수록 가중되었지만, 그 진실한 내용은 오히려 갈수록 아득하고 모호하게 되어 우리의 현실생활과의 거

3) 胡適, 「新文化運動與國民黨」, 『胡適文集』(제5책), 北京大學出版社, 1998, 579쪽.

리도 갈수록 편차가 커지게 되었다.

학과 연구의 형식으로 말하면, “중국철학”의 윤리사상에 대한 서술이든 “중국윤리학사”의 기본 모습이든 모두 “진보”(進步)와 “보수”(保守), “자본주의적인 것”(資本主義的)과 “봉건주의적인 것”(封建主義的), “개성을 해방하는 것”(個性解放的)과 “인성을 억압하는 것”(壓抑人性的) 내지는 “유물”(唯物)과 “유심”(唯心)과 같은 보편주의적 방식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유가윤리는 흔히 부정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대상이라 여기고, 좋게 말해도 약간 “역사적 진보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학과 형식과 기본관념의 배후에는 서양근대사상의 영향과 지배를 깊게 받은 것으로, 형식상 암암리에 “서양은 우월하고 중국은 열등하다”(西優中劣), “서양은 수준이 높고 중국은 낮다”(西高中低)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서양의 문제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서양을 스승으로 삼는”(以西爲師) 경향성을 분명히 드러낸다. 근대 이래로 “유럽중심주의”[歐洲中心主義]가 크게 유행하면서 서양학자들은 흔히 인류문명의 담당자라 자임하고서는 서양문화를 인류 보편적 가치의 유일한 대표라고 본다. 그들의 눈에는 유럽문명 이외의 다른 문화와 민족은 야만적이거나 정체된 것으로 근본으로 “진보”를 말할 것이 없다. 바로 이처럼 잘못된 관념과 편협한 마음이 지배하면서 19세기 이래 유럽사상가는 여러 가지 유가윤리를 폄하하는 잘못된 견해를 도출하였다. 우리는 헤겔을 사례로 삼을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중국인의 도덕과 법은 나누어지지 않아 “도덕적 법[道德的法律]이 입법의 조례가 되었고, 법 자체는 또 일종의 윤리를 갖춘 형태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재성”(內在性)—양심, 자유 등과 같은 주관적인 것은 모두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도덕은 내심에서 발하여 타인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순수한 강제”(純粹的強迫)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자체와 그 생존원칙도 언제나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진보”는 전혀 말할 것이 없다. “(중국의) 이러한 역사는 대부분이 아직 역사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옛날과 똑같은 장엄한 횡멸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⁴⁾ 또 “중국인은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법이 없고, 또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 없다”고 말하였다. 중국문화의 핵심[精華]은 단지 공자로부터 발휘되어 나온 상식적이고 “전혀 뛰어난 점도 없는”(毫無出色之點的) 도덕적 교훈과 자연종교의 간단한 결합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그것(중국/중국문화-옻긴이)의 두드러진 특색은 ‘정신’의 일체—실체와 이론상에서 절대적으로 속박이 없는 윤리, 도덕, 정서, 내재적 ‘종교’, 과학과 진정한 ‘예술’—가 한마디로 모두 그들과 멀다는 것이다.”⁵⁾ 여기에서 헤겔은 단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것으로 (당연히 그의 후대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큰 데, 마르크스라는 중간 고리를 지나면서 현대 중국의 “자아”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인 형태를 만드는 작용을 하였다), 19세기 이래 최고의 유럽사상가는 거의 모두 유가윤리를 “선진국 유럽”(先進的歐洲)의 “반면교사”(反面敎員)로 삼고서 조롱하는데, 조금이라도 호감을 갖는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유럽중심주의” 입장을 배경으로 하여 (중국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오리엔탈리즘”(東方主義)을 비판할 때 묘사한 것과 같다. “동방학 언어의 그 내재적 일치성, 그 엄격한 절차[程序]는 모두 서양 독자와 소비자를 위해 설계된 것이

4) 헤겔, 『歷史哲學』, 王造時 譯, 上海書店出版社, 2001, 108-109쪽.

5) 같은 책, 135-137쪽; 『哲學史講演錄』(제1권), 賀麟·王太慶 譯, 商務印書館, 1959, 119-120쪽.

다.”⁶⁾ 서양은 지난 2백여 년 동안 문화적으로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주도면밀하게 언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의 다른 나라에 대한 묘사와 온갖 상상은 이미 모종의 선구적인 형식이 되어 세계적으로 현대성을 서술함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또 그들에 의해 묘사된 사회[群體] 자체도 “자신”[自我]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이끌게 되었다. 서양 학문의 시각에 의한 유가윤리에 대한 표현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왜곡된 내부비판과 복잡한 외부 요소의 다중적 영향으로 유가윤리의 현대적 서술은 갈수록 창백하게 되어 우리는 이미 실재로 아직도 말할 만한 것으로 무엇이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마땅히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현실생활 중의 공허함과 생소함 및 이론연구에서의 “실어증” 내지 “뒤죽박죽이 된 말들”[胡言亂語]은 유가윤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우리의 실제생활을 멀게 만들었고, 개혁개방으로 세계를 향해 문을 연 후에 안팎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부조화가 심각함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점차 의식하게 되었다. 지난 세기 80년대 후기에 유가윤리와 산업화된 동아시아에 관한 토론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마음 속 깊이 매몰시켜 왔던 문화의 뿌리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전통 문화와 현대생활이라는 “이중구조”[夾層] 사이에서 왕래할 수 있는 통로를 보게 되면서 유가윤리를 마주할 때 모종의 현실감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하였다. 이어서 대규모로 대외적 교류를 통해 홍콩·대만과 해외의 중국인이 거주하는 지역과의 심도 있는 접촉과 이해 및 동아시아 사회(특히 한국이다)로부터의 자극은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 속에 또 다른 즐거움이 있네”(別有一番滋味在心頭)라는 것을 깊이깊이 감지하게 하였는데—왜 그들은 전통을 “청산”[清理]하지 않고도 그대로 현대화를 실현하였는가? 왜 우리가 내던져버린 신발로 여겼던 유가윤리는 이들 지역의 발전에 장애와 무거운 부담이 되지 않고 도리어 사회의 조화와 문화 창신의 동력이 되었는가? 이처럼 외부에서 온 경고와 자극은 내심에 매몰된 지 오래된 “자아”의식을 일깨우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시각을 바꿔 “이미 익숙하고 또 낯선”(既熟悉又陌生) 유가윤리를 다시 따져보게 만들었다.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한국드라마”(韓劇)를 가지고 말하면 유행하고 있는 문화적 요소 이외에 도덕적 의미에서 강렬한 대비감과 심리적 안정감이 자극한 사유 및 내심 깊은 곳에서 불려일으킨 전통문화에 대한 친밀감은 실재적으로 유가윤리사상이 성공적으로 “반대로 먹거리가 되는”[反哺] 하나의 큰 사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외부 세계와 만나고 “직접 그 경계를 살펴보는”[身任其境] 식으로 비교하여 비춰본 뒤에야 우리의 유가윤리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었고, 오랫동안 “철저하게 분열된”[徹底決裂]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천천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전 지구화의 걸음이 빨라지면서 한편으로는 고도로 동질성과 “모두 같고 모두 다르다”(畢同畢異)는 식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분산화”[離散化] 효과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 지구화”[全球化] 자체가 간직하고 있는 이율배반[悖論]이다. 문명형태로 말하면 경제의 일체화와 생활의 동질화가 야기한 문화적 자각, 뿌리를 찾는 의식과 신분적 동질감은 오늘날과 같이 강렬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의미와 계기로 앞으로는

6) 에드워드 사이드, 『東方學』, 王宇根 譯, 三聯書店, 1999, 432쪽.

더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우리로 말한다면 전 지구화는 절대 전통의 소실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전통의 변화일 수밖에 없다. 유가윤리는 새로운 도전을 만나기 전에 먼저 역사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해야 하는데, 특히 근대 이래로 안팎의 협공으로 형성된 “마귀화”[妖魔化]의 상황에서 벗어나 명성을 바꿔 적어도 “등장할 수 있는”[出場]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학문적, 관념적 내지는 기본적 서사 구조에서 그에 대해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개념 틀, 문제의 방향, 사상적 맥락과 역사적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하고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필요로 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방식 및 처리방법을 바꾼 뒤에야 유가윤리의 가치와 의의는 충분히 드러날 수 있고, 그 합법성도 진정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유가윤리의 새로운 역량을 되살리는 것은 현실생활에서 관심을 갖고 발굴하고 힘써 함육(涵育)하고 부단히 배양하는 것과 사회적 측면에서 힘써 제창하고 그 모델을 이끌어 내는 것 이외에 학문적으로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오랫동안 비판적 분위기로 조성된 이질감 및 심리적 동질감이라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새롭게 동정적 이해[同情理解]의 자세로 그 정면의 가치와 의의를 긍정함으로써 유가윤리는 점차 “스스로 주재자”[自作主宰]로서의 자주성을 서술하고 표현하는 것을 확립해야 한다. 계통적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것과 서사의 전환은 지금 가능한 것으로, 경제적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으로 말하면, 이것은 문화적으로 “자아” 형상을 드러내고, 또 더 나아가 자아 신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경해봉 선생 약력

1957년 출생하였는데, 영하(寧夏) 하란(賀蘭) 사람이다. 1978년 북경대학 철학과에 입학하였고, 북경대학 중국철학과정 대학원에 입학하여 1984년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5년부터 심천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1991년 홍콩 중문대학(中文大學) 신아서원(新亞書院) “명유”(明裕)의 방문학자이다. 1997-1998년 미국 하버드대학 “연경”(燕京)의 방문학자이다. 2001년 홍콩 한어기독교문화연구소(漢語基督文化研究所) 방문연구원이다. 2011년 대만대학 인문사회고등연구원(人文社會高等研究院) 객좌연구원이다.

현재 심천대학문학원(深圳大學文學院) 원장, 국학연구소(國學研究所) 소장, 철학과 교수, 무한대학(武漢大學) 겸임교수, 국학 전공 박사생 지도교수, 중산대학(中山大學) 중국철학전공 박사생 지도교수, 홍콩 중문대학 중국철학과 문화연구중심(中國哲學與文化研究中心) 통신연구원이다. 국제유학연합회(國際儒學聯合會) 이사 및 학술위원회 위원, 중국공자기금회(中國孔子基金會) 학술위원회 위원, 중국현대철학연구회(中國現代哲學研究會) 부회장, 중국철학사학회(中國哲學史學會) 상무이사, 중화공자학회(中華孔子學會) 이사, 광둥유학회(廣東儒學會) 부회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주로 중국철학사와 유학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저작으로 『웅십력』(熊十力), 『양수명평전』(梁漱溟評傳)(合著), 『중국철학의 현대적 해석』(中國哲學的現代詮釋), 『신유학과 20세기 중국사상』(新儒學與二十世紀中國哲學), 『웅십력철학연구』(熊十力哲學研究), 『학문과 유학사상의 해석』(詮釋學與儒家思想) 등이 있다. 편저로 『당대신유가』(當代新儒家), 『유가사상과 현대화』(儒家思想與現代化), 『백년 중국철학 경전』(百年中國哲學經傳)(5권), 『전신집』(傳薪集), 『문명의 대화』(文明對話), 『전지구화시대의 유가윤리』(全球化時代的儒家倫理), 『습신집』(拾薪集), 『생명의 함양』(生命的涵養) 등이 있다. 함께 정리하고 교점한 것으로 『웅십력전집』(熊十力全集) 등이 있다. 편집한 것으로 『중국문화와 중국철학』(中國文化與中國哲學)(4집), 『문화와 전파』(文化與傳播)(5집) 등이 있다. 『중국사회과학』(中國社會科學), 『철학연구』(哲學研究), 『중국철학사』(中國哲學史) 등의 간행물에 학술논문 백여 편을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양수명평전』(“國學大師叢書” 가운데 하나이다)이 제3회 국가 도서상 지명상, 『유가사상의 현대적 해석에서 철학화의 길 및 그 의의』(儒家思想現代解釋的哲學化路徑及其意義)는 광둥성 2004-2005년도 철학사회과학 우수성과상 2등상, 『20세기 중국철학의 발전단계 및 그 특징』(20世紀中國哲學的發展階段及其特點)은 광둥성 제3회 기간상 우수논문 2등상, 『중국철학의 현대적 해석』(中國哲學的現代詮釋)은 심천시 제4회 철학사회과학평가상 우수저작 1등상, 『20세기 유학의 3차 전환』(20世紀儒學的三次轉折)은 광둥성 2008-2009년도 철학사회과학우수성과상 2등상, 『해석학으로 본 유가철학의 교화관념』(從詮釋學看儒家哲學的教化觀念)은 제17회 국제중국철학대회에서 발표한 2011년 부위훈기금회(부위훈기금회) 최고논문상, 『웅십력철학연구』(熊十力哲學研究)는 심천시 제5회 철학사회과학평가상 우수저작 1등상과 광둥성 2010-2011년도 철학사회과학 우수성과상 2등상을 수상하였다.

여러 차례 대만지역과 미국, 한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혹은 방문교류를 하였다. 현재 연구과로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중요 항목 “유학과 해석학”(儒學與詮釋學)(항목의 주관자), 교육부의 중요 작업 항목 “『유장』 편찬과연구”(『儒藏』編纂與研究)(하부 항목의 책임자)와 국가사회과학기금 중점 항목 “『유장』 정화본”(『儒藏』精華本)(세부 항목 책임자) 등이다.